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박 영 희 의원

【답 변 자】

○ 행정안전국장



답 변 서

질문일시	제221회 남양주시의회		
질문의원	박영희 의원	소관부서	회계과

□ 질문내용

시청사 주차장의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대책(주차장 유료화) 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
변

- 우리시는 1993년 당시인구 8만명의 미급시청사를 설계하면서 15만 인구에 대비하여 건축된 건물로, 현재 64만 인구가 사용하는 청사와 부대시설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 시 본청사내 부설주차장은 주차동 1,2층 87면과 본관 및 신관주변 82면, 의회동 57면 등 총 226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직원과 방문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난 2013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조건부 승인받아 전체부지 7,974㎡를 국비 12억5천과 시비와 기금 각각 6억2천5백만원 등, 총 25억원을 확보하여 “그린빗물 인프라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성되면 259면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직원차량 2부제, 민원차량 5부제 등 한정된 여건 속에서도 자체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워낙 공간이 협소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2012.11.05.에는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유료화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주차장 유료화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도시화된 1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 12개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사 등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 향후 우리시에서는 “그린빗물 인프라조성사업” 공사가 5월 말에 준공되면 유료화로 전환 할 계획이나, 유료화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사업비로 시설비 2억원과 인건비 5천만원 그리고 기타경비 3천만원 등, 총2억 8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운영상으로는 출차시 사용료 정산에 따른 시간지체 현상, 직원 차량의 수시 진·출입에 따른 정산과, 주차료 세입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초기비용 회수에 장기간 소요될 것과,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여온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 될 것으로 보이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 주차장 유료화는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에 있으나, 현 시점에서 주차장 유료화가 시행되어도 설치된 주차 면수와 이용차량의 균형이 맞지 않아 투입비용과 인력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좀 더 신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시행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예상되더라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완료와 청사주차장 유료화 시점에 맞춰 시민 홍보와 행정예고 등 예상문제점의 보완과 함께 우리시가 지향하는 주차난 해소방안과, 시민불편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